

AUTHOR 황정우

TITLE 칼뱅 : 신학 논문들

IN 목회와 신학

Vol. 257 (11, 2010): 192-199

칼뱅: 신학 논문들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황정욱 한신대학교 교회사 교수

칼뱅의 저술을 말할 때 제일 먼저 4부작「기독교 강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칼뱅(1509~1564)은 55년이라는,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기독교 강요」외에도 허다한 글을 남겼다. 그의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생애, 늘 병마에 시달렸던 생애를 고려할 때, 우리는 그의 왕성한 창작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칼뱅의 초기 작품

칼뱅의 작품 활동은 이미 15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칼뱅은 1528년부터 오를레앙대학 법학교수 피에르 드 레트왈(Pierre de l'Estoile)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그런데 그는 당시 대학생들의 관습에 따라 1529년에 부근에 있는 부르즈대학에서 강의를 들었다. 당시 유명한 이탈리아인 법학자 알치아티(Andreas Alciati)가 부르즈에 와서 강의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알치아티의 강의를 들은 칼뱅은 실망했다. 알치아티가 소문에 비해 너무 빈약한 내용을 제공할 뿐 아니라 라틴어를 너무 조야하게 구사했던 것이다. 그러던 중 알치아티가 악명으로 자신의 스승 레트왈을 공격하는「변증」(Apologia)을 출판했고, 이에 레트왈의 제자인 뒤쉬맹이「반변증」(Antapologia)을 집필하면서 친구 칼뱅에게 이 글의 서문을 의뢰했다. 그래서 칼뱅이 서문을 쓴「반변증」이 1531년에 출판되었다.

이어서 1532년에는 약관 23세의 청년 칼뱅의 처녀작「세네카의 관용론」(De clementia) 주석이 출판되었다. 이 작품은 1529년 에라스무스가 세네카 작품집을 출판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칼뱅이 당시 유행하던 인문주의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집필한 것으로서 종교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일부 학자들은 칼뱅이 당시 프랑스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종교개혁 운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을 직면하여 왕에게 관용을 호소하려는 의도에서 이 작품을 집필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며 이 작품에서 종교개혁자의 초기 모습을 발견하려고 하지만, 작품 어디에서도 단서를 발견하지 못한다.

종교개혁자로서 칼뱅의 작품은「프시코파니키아」(Psychopannychia)에서 시작된다. 이 저서에는 2개의 서문이 있으며, 첫 번째 서문은 1534년 오를레앙에서, 두 번째 서문은 1536년 바젤에서 집필되었다. 이 저작이 1542년 스트라스부르에서 출판되었을 때의 표제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영혼이 잠들지 않고 그리스도 곁에서 살아 있다”였다. 이 글은 영혼 불멸설을 변증하고 영혼 수면설을 반

박했다.

칼뱅은 1536년 3월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했다. 그러나 프랑스 왕에게 바친 헌정사의 날 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저서는 1535년 8월 바젤에서 탈고되었다. 칼뱅은 1534년 10월에 발발한 플라카르드 사건 이후 종교적 자유를 찾아 프랑스를 탈출하여 바젤로 망명했다. 칼뱅은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탈고, 출판한 이후 잠시 이탈리아 페라라를 방문한 후 자기 고향 노아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고향에 간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 위함이었다. 칼뱅은 영원히 고향을 등지고 다시 금스트라스부르로 이주할 계획이었으나,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네바를 경유하는 우회로를 통해 스트라스부르로 가야 했다. 그러나 1536년 7월 제네바에 도착한 칼뱅은 당시 제네바 종교개혁을 담당 하던 파렐에 의해 붙잡혔다.

제네바는 공식적으로 1536년 5월 종교개혁을 도입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 칼뱅은 동년 8월부터 생 피에르 교회에서 바울 서신을 강해하기 시작했다. 제네바 시의회는 프랑스인 파렐을 초빙했으나, 파렐은 조직력이나 신학적 지식 없이 오직 개혁의 열정만 넘치는 인물이었다. 파렐은 동포 칼뱅에게서 종교 개혁 동반자로서의 자질을 발견하고 자신의 개혁 사업을 돕도록 강권했다. 파렐의 설득으로 칼뱅은 제네바에 정착하기로 결정했다.

「제네바 신앙고백」과 「제네바 교회와 예배 조직에 관한 논제들」

시의회 기록에 의하면 1536년 11월 10일에 「제네바 신앙고백」이 파렐과 칼뱅에 의해 시 당국에 제출되었으며 당국에 의해 접수되었고 보다 상세한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다. 「제네바 신앙고백」은 그의 단독 저작이 아닐지라도 적어도 파렐과의 공동 저작으로 인정할 근거는 충분하다. 이로써 목회 행정가 칼뱅의 면모가 처음으로 드러난다. 「기독교 강요」 초판과 같은 해에 기록된 이 문서의 첫 번째 조항은 그 이하의 내용이 출발하는 근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한다. 믿음과 종교의 기준은 오직 성서뿐이다.

칼뱅은 1537년 1월 16일 시의회에 「제네바 교회 조직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칼뱅이 제출된 초안은 문안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매일 성찬을 거행하자는 칼뱅의 요청은 거부되었고 연 4회 시행의 절충안으로 타협되었다. 또한 권징과 출교의 도입도 승인되지 않았고 권징위원회의 설치도 승인받지

못했다. 신앙고백은 그 전 해에 승인되었지만, 시의회는 시 당국자들과 시민들의 신앙고백에 대한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는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혼인 문제를 다루게 될 위원회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문서에 표현된 종교개혁 프로그램이다.

1537년 3월 칼뱅이 그의 두 번째 논쟁적 저서 「두 서신」을 바젤에서 출판하기 전, 즉 1월 16일에 「교회 조직에 관한 논제」가 시의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편 「신앙고백」에는 다음과 같이 부제가 붙어 있었다. “제네바 교회에서 사용되는 교리 교육 지침에서 발췌된, 제네바의 모든 시민과 거주자들과 나라의 신하들이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함.” 그러나 칼뱅과 파렐의 제안은 난관에 봉착했다. 200인 위원회는 「논제」에서 요청한 매달 마다의 성찬식 거행을 거부했고, 종전처럼 연 4회의 거행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의회는 교회가 권징권을 주장하는 것을 수락하지 않았고, 신앙고백에 서명하는 일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다. 결국 1538년 1월 14일에 200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서명을 거부하는 자들은 상식에 따라 행동하며, 설교자들은 서명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성찬을 거절할 수 없다. 이것은 칼뱅이 원한 바 세속 정부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조치였다. 동년 2월 3일에는 새로운 이사들이 선임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칼뱅의 적대자들이었다. 동년 3월 11일에 200인 위원회는 베른시의 예배 의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칼뱅과 파렐이 이 결정을 교회의 주권에 대한 정부의 간섭으로 간주하고 이에 항의하자, 3월 12일에 위원회는 설교자들에게 정치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4월 8일에는 제네바의 설교자 쿠로가 설교에서 이사들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소위원회에 소환되었다. 4월 19일에 칼뱅과 파렐은 소위원회에 소환되어 시가 베른 예배서를 도입하는 결정에 순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두 사람이 성령강림절까지 답변의 유예를 허락해줄 것을 요구하자, 소위원회는 쿠로에게 설교를 금했다. 그러자 두 설교자는 동료와 연대할 것을 선언했고 베른시의 요구대로 성찬을 거행하기를 거부했다. 그 다음 날 쿠로가 시의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설교단에 올라갔을 때 그는 체포되었다. 칼뱅과 파렐이 쿠로의 방면을 요구하자 시는 그들의 설교권마저 철회했다. 4월 21일 부활절에 그들에 대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칼뱅과 파렐은 관습대로 설교직을 수행했으나 성찬식은 집행하지 않았다. 4월 22일, 23일에 걸쳐 200인 위원회, 총회, 소위원회는 두 사람의 설교 금지와 3일 내의 추방을 표결했다. 두 사람은 4월 26일에 제네바를 떠났다.

「사들레토에게 보낸 칼뱅의 답변」

칼뱅은 제네바에서 추방된 후 한동안 바젤로 가서 다시 조용히 학문에 몰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부처의 권유로 인해 스트라스부르의 프랑스인 난민 교회를 맡게 되었다.

1539년 3월 카르팡트라의 주교 사들레토는 제네바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서신을 보내 로마 가톨릭 교회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다. 교양 있는 인문주의자인 사들레토가 제네바 시민들을 상대로 신, 종교, 성서에 대해 설득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교회 일치 파괴의 책임은, 사전에 다른 스위스 도시들에서 활동하던 일부 교활한 인간들에게 있었다. 그의 말은 제네바의 목사들, 특히 파렐을 겨냥

칼뱅은 1537년 시의회에 「제네바 교회 조직에 관한 제안」을 제출했지만 매일 성찬을 거행하자는 요청은 거부되었고 연 4회 시행의 절충안으로 타협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서에 표현된 종교개혁 프로그램이다.

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기꾼과 새로운 일을 피하는 자로 매도되었다. 사돌레토의 서신을 받은 제네바 시의회는 답신을 보내기로 결정했지만, 누구에게 답신을 의뢰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베른시는 칼뱅을 책임자로 추천했다. 칼뱅은 처음에는 주저했다. 당시 그는 제네바의 추종자들과 서신 교환을 하고 있었다.

결국 칼뱅은 동년 9월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들의 권유로 답신을 쓰게 되었다. 그가 답신을 작성하는 데 소요한 시간은 불과 6일이었다. 그는 종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서술했다. 또한 사돌레토가 주장한 교회 개념을 반박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경배되는 곳에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것을 피하는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성서에 의지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들이다.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군기가 있는 곳에 있을 따름이다. 칼뱅은 이런 방식으로 사돌레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과 「제네바 교회 헌법」

칼뱅이 없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주교 사돌레토가 제네바 시민들에게 가톨릭 신앙으로 복귀할 것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제네바시는 칼뱅을 다시 데려오기에 이르렀다. 1541년에 9월 13일에 귀환한 칼뱅은 「제네바 교회 헌법」 초안 집필에 착수했다. 칼뱅은 그동안 부처가 목회하던 스트라스부르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목사, 박사, 장로, 집사의 네 직분을 두었고, 종전대로 장로들에게 시민의 윤리를 감독하게 하고 성찬식에 앞서 윤리적 검증을 통해 성찬식 참여를 허락하도록 했다. 이처럼 제네바 교회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 거행에 이어서 교회 훈련을 교회의 세 번째 표징으로 삼았다. 그리고 칼뱅은 1542년에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을 작성했다.

칼뱅은 새로운 「제네바 교회 헌법」 초안에서 1537년과 마찬가지로 성만찬을 매달 1회 집행하기를 요구했다. 그러나 그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정안에 의하면 여전히 1년 4회, 즉 부활절, 성령 강림절, 9월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성탄절에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이 새로운 교회 헌법은 혼인, 장례, 병자 방문, 수감자 방문, 어린이 교리 교육에 관한 규정들로 끝을 맺었다.

총회의 표결에 의해 최종 공적 법이 된 이 수정안은 시 문서고에 보관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이것은 목사들의 모임의 보고서에 문서로 보존되었다. 이 말이 본문 앞에 있는 서론에서 나타난다. 또한 1541년 11월 25일자 소위원회 보고서에 포함된 다음의 언급에서 확인된다. “목사들의 말을 듣고서 소위원회, 200인 위원회와 총회에서 그리스도교의 질서를 위해 통과된 헌법 전문을 목사들과 당회 전 권위원들에게 송부하기로 결정했다.” 칼뱅이 제안한 네 교직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라스부르에서 시행된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무들의 동등성이다. 즉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신앙에 입각해서, 교직 간에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지체들로서 주를 위해 각기 맡은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황을 수장으로 하는 로마 교회의 계급 서열제에 대립하는 혁신적인 제도였다.

1545년에 칼뱅은 다시금 「제네바 교리 문답」을 작성했다. 제2차 제네바 교리 문답은 그 자체가 신앙 고백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1537년의 교리 문답과는 달리 칼뱅은 별도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지 않았다. 또한 칼뱅의 표현대로 이 문서는 신앙의 요목을 담고 있었다. 당시 교리 문답은 강요(*institutio*)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 문서는 1537년의 것과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이전의 것과는 달리 교사와 어린이가 대화하는 형식을 취했고, 사상 면에서도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즉 이전에는 루터의 「소교리 문답」(1529)의 구조처럼, 그리고 자신의 「기독교 강요」 초판의 순서대로 십계명을 먼저 다루고 나서 사도 신조와 주기도문, 곧 신앙론을 다루었던 반면, 여기에서는 사도 신조 해설이 율법과 주기도문에 앞선다.

칼뱅은 서문에서 “바울이 추천한 신앙의 일치성을 위해서, 세례에 앞서 엄숙한 신앙 고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거룩한 교리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 사이에 합의가 존립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단일한 교리 문답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제네바 교리 문답은 세례를 받을 어린이들이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기독교 신앙의 요목이었다. 이 문서의 목적은 제네바 교회뿐 아니라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일치를 확립함에 있었다. “만일 모든 사람이 한 신앙에서 합의하기 위해 이 기초가 없다면 세례의 유익이 무엇인가?” 개신교 진영이 한 교리 문답서를 사용하는 것이 상으로 바람직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다. 각 교회는 자체의 교리 문답을 갖기를 원한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것을 막기보다는, 각 교회가 자신의 교리 문답을 제시하고 상호 교환하여 형식면에서는 아닐지라도 내용적으로 상호 일치됨을 확인하고 이를 서로 존중하여 진정한 일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제2차 제네바 신앙 교리 문답의 구조를 보면, 제1부 신앙론(1~21장), 제2부 율법론(22~33장), 제3부 주기도문(34~43장), 제4부 성서론(44~45장), 제5부 성례전론(46~55)으로 구성된다. 전체는 55장으로 되는데, 매주 한 장씩 학습하여 주일날 회중 앞에서 암송하도록 만들었다.

칼뱅이 신앙론을 율법 앞에 놓은 것은, 신학적 이유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기독교 강요」 초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를 계시하시고 성령의 내증을 통해 우리 안에 새겨주시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장 먼저 서술되었

칼뱅이 「제네바 교회 교리 문답」에서 제안한 네 교직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스트라스부르에서 시행된 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이러한 직무들의 동등성이 로마 교회의 계급 서열제에 대립하는 혁신적인 제도였다.

다. 반면에 여기서는 먼저 신앙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그다음으로 인간에게 신앙에 비추어서 그의 죄를 밝히는 구조를 택했다. 믿음이 스스로 그의 죄를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 이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인간은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기독교 강요」의 거듭된 개정과 모종의 연관이 있다. 1539년판에는 하나님 인식, 인간 인식과 자유 의지, 신앙,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구약과 신약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삶이 추가되었다. 즉 칼뱅은 「기독교 강요」 1539년판부터 루터적 구조를 포기하고 독자적인 구조를 취했다. 이런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낸 실례가 바로 1542년도 「제네바 교리 문답」이다.

1541년 교회 헌법은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화국의 도시와 영지의 목사들 간에 일치와 규율을 보증하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했다. 이것들 중 한 목표는 상호 권징의 실천일 것이다. 그러나 「시골에서의 교구 조직」은 처음에 부적합하게 작성된 듯했다. 1546년 1월 11일의 날짜를 가지고 있는 이 문서는, 당시 종교개혁자는 선한 질서의 유지와 목사들이 기능을 수행하는지와 회중이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지 감사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시골 교회의 정기적 시찰을 조직하기 위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할 필요를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칼뱅은 1546년 1월 25일에 의회 모임에 그의 초안을 제출했고, 이것은 채택되었다. 의회록은 이런 표현으로 시찰 규정 초안의 도입을 보고했다. “1546년 1월에 총회로 모인 형제들에 의해서, 이후로 제네바 교회의 모든 교구에 대한 시찰이 이루어질 것이 결의되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두 명의 자문관이 목사들과 함께 지방 영주를 시찰하는 데 동의했고 지시했다. 이것은 목사들이 시골 목사의 교리와 삶에 관해 문의하고 자문관은 영주의 삶에 대해 문의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후에 1561년의 제네바 교회 헌법 속에 들어갔다.

1541년 제네바 교회 헌법의 마지막 절은, 규정들이 영지에 속한 마을들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규정들의 도입과 실천은 도시 밖의 교구들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그래서 질서를 확립할 필요를 느꼈고 시골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관습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규정에 의해서 종교개혁 원리들을 적용할 필요를 느꼈다. 1546년 말 칼뱅은 그의 다른 동료 목사들과 함께 이것을 준비했다. 이것은 목사회(Venerable Compagnie) 회의록에 삽입된 규정 초안 사본의 상단에 있는 전문에서 설명된 바와 같

다. “1546년 12월 17일 금요일에, 총회로 모인 제네바 교회의 목사들은, 교회의 상태와 조건에 관해 논의하고 공표하고 규제한 것과 또한 다른 기억할 만한 일들을 정리하는 것과 적시에 개교회를 돕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진술했다. 이것을 하기 위해 목사들은 이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같은 날 시골 교구들의 개혁에 관한 일부 규정들이 제안되었다. 이것들은 좋고 유익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것들은 나오리들의 조언과 요구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제출되기로 동의를 얻었다. 이것들은 나오리들에 의해 통과되었고 1547년 2월 3일에 의회에서 선포되었다. 그다음으로 200인 위원회에 이첩되었다.” 1547년 5월 17일에 초안은 이렇게 공식으로 채택되었다. 이것은 1561년판 제네바 교회 헌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교회 개혁의 필요성」

「교회 개혁의 필요성」은 서문이 이 문서의 배경에 대해 말해준다. 황제 칼 5세는 복잡한 동기들로 인해 슈파이어 제국회의를 소집했다. 그것들 중에는 종교적인 논쟁이 아주 오래 계속된 데 대한 불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영주들이 이로 인해 프랑스와의 전쟁에 관심을 두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부처는 종교개혁의 정당한 논거를 주장하는 글을 보냄으로써 황제의 마음을 준비시켜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글이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엄습해 왔고, 그래서 칼뱅의 조언을 구했다. 칼뱅은 놀라운 힘과 속도로 이 일을 처리하여, 1543년이 끝날 무렵(슈파이어 회의는 1544년 2월에 열리도록 소집되었다)에 칼뱅은 베자가 「칼뱅의 생애」에서 그 시대 가장 열정적이고 중량감 있는 저술들 가운데 하나라고 평한 문서를 준비했다. 칼뱅 전집 편집자들은 이 글이 내용의 중요성과 문체의 우아함 두 측면 모두에서 칭찬할 만하다고 평한다.

「어떤 무익한 자의 중상비방을 반박하는 짚막한 답변」

「어떤 무익한 자의 중상비방을 반박하는 짚막한 답변」이 염두에 두고 있는 무익한 자는 카스텔리오다.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개종한 자로, 유능하고 언어학에 능통하며 관용적인 이자의 이름이 너무나 신랄한 상황에 관련되고 칼뱅과도 매우 복잡하게 연루되어, 어느 측도 그 논쟁에 대해 절제와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 두 사람의 첫 접촉이 결국 것처럼 폭력적인 격론에 달하리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카스텔리오는 1540년에 스트라스부르에 있던 칼뱅을 방문한 손님이었으며, 그 다음해에 제네바에 있는 학교를 맡아달라고 초청을 받았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외설적이고 음란한 노래”로 간주했던 야가서에 대한 “불경한 해석”을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적인 이견들로 인해 결국 학교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렇지만 카스텔리오가 학교를 떠날 때 칼뱅은 그를 위해 우호적인 추천서를 써주었다. 그는 바젤로 가서 여생을 보내면서 칼뱅과 제네바 교회를 공격했으며, 이로 인해 유감스럽게도 그의 이름이 폭넓게 기억되고 있다. 여기서 비난과 그에 대한 방어 이야기를 전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장황하고 복잡하다.

상당한 부분이 모호한 채 남아 있기도 하다. 특별히 세르베투스의 죽음은 비록 확인할 수 없기는 하지만 이미 충분히 불타오른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양측이 서로를 몰아세우는 데 사용된 출판물들의 저자가 누구인지조차 아직 얼마간 의문의 여지가 있으며, 이 익명성으로 인해 문제를 명료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좌절되고 있다. 칼뱅 전집 편집자는 다음과 같은 임시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세 편의 글이 출판되어 계속해서 칼뱅의 주목을 받았는데, 칼뱅의 예정론을 공격하는 이 글들은 하나는 프랑스어로, 하나는 라틴어로 인쇄되었고, 나머지 하나는 라틴어로 직접 기록되었다. 칼뱅은 카스텔리오가 저자가 아닌지 의심했다. 그는 먼저 나온 두 책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응수하여, 시안에 대해 그리고 저자에 대해 모두 비판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인 1558년에 좀 더 긴 글을 써서 응수했다. 먼저 나온 작자미상의 두 책자와 칼뱅의 첫 번째 응답의 글은 유실되었다. 칼뱅의 세 번째 응답에 대해 카스텔리오가 응수하는 글을 썼는데, 카스텔리오는 나중에 베즈의 통렬한 비방에 대응하는 글을 써서 이 글에 부록으로 덧붙였다. 여기 번역된 글은 칼뱅의 두 번째 답변의 글이다. 칼뱅의 예정론에 대한 카스텔리오의 비난의 특징은 그 답변서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카스텔리오는 칼뱅이 하나님을 죄의 창조자로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의지를 둘로 나누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모든 사람이 본성상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이지만 구원은 믿음과 견인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지는 인간 행동을 결정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해설」

칼뱅과 베스트팔(Westfal) 사이에서 논쟁이 있은 지 1, 2년 후에 그 논쟁의 파동이 채 가시지 않은 물속을 다시 휘젓고 누비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는데, 헤스후지우스(T. Heshusius Vesalius)였다. 불링거(Heinrich Bullinger)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교사로 있을 때 연루되었던 그 논쟁에 관해 최초로 칼뱅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그 이후 마그데부르크에 거주하던 헤스후지우스가 펴낸 「성찬에서 그리스도 몸의 임재에 관하여」 사본을 칼뱅에게 보냈던 것 같다. 불링거 자신은 이런 하찮은 일에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고 했고, 칼뱅 역시 처음에는 도전에 응할 생각이 없었던 듯하다. 그렇지만 “돌마지도 격분시킬 만큼 너무 지나친 모욕을 당하지” 갑작스럽게 생각을 바꾸어, 그는 이 격렬하고 민첩한 새로운 상대와 교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1561년 「분명한 해설」이 세상에 나왔다. ∞

황정욱 서울대학교 독문학과를 졸업했고, 한신대학교에서 신학석사(Th.M.) 학위를, 독일 부퍼탈신학대학에서 신학박사(Dr.theol.) 학위를 받았다. 지금은 한신대학교 신학과 교회사 교수로 있다.